

# “막으면 뚫는다”...진격의 광주, 계급장 떼고 다시붙자

광주FC, 내일 오후 2시 지난 시즌 더블 달성 전북과 홈 맞대결

‘지난해 코리아컵 결승 패배 설욕·홈 5연승’ 필승 동기 부여  
신·구조화 완벽한 팀워크·무패 자신감 한몫 “공은 둥글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전북현대를 홈으로 불러들여 지난해 코리아컵 결승전 설욕에 나선다.

광주는 14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6 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7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2라운드 홈 개막전에서 3-2 승리를 거두며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최경록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신창무의 멀티골이 터졌고, 경기 종료 직전 김경민이 무고사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슈페세이브를 보여주며 짜릿한 승리를 완성했다.

젊은 선수와 베테랑의 조화도 돋보였다. 유스 출신 신인 센터백 공배현은 경기 초반 만

상기의 부상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우며 성공적인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선제골 도움과 함께 광주 공격을 이끌었다.

광주는 개막 후 2경기 연속 무패(1승 1무)로 리그 2위에 올라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 상대로 8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며 전북전을 앞두고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번 전북전은 지난해 열린 2025 코리아컵 결승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광주는 당시 연장 접전 끝에 첫 우승을 노렸지만, 아쉽게도 1-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이번 홈경기는 그 아쉬움을 씻을 기회다.

광주는 최근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25일 FC안양전 1-0 승리 이후



지난 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의 경기에서 김경민의 슈페세이브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광주FC 선수단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홈 4연승에 단 2실점밖에 기록하지 않은 정도로 상대를 누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홈 4연승은 구단 통산 K리그1 홈 최다 연승 기록으로, 광주는 전북전 승리를 통해 해당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하겠다는 각오다.

상대 전북은 리그 개막 후 1무 1패로 다소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시즌 더블

우승(리그, 코리아컵)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으로 모파를 비롯해 티아고, 이승준, 이동준, 오베르단, 송병근 등 전 포지션에 걸쳐 리그 정상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승부기에 상된다.

이정규 감독은 “실전에서 훈련의 80% 정도 보여준다면, 전북전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수문장 김경민은 “지난해 코리아컵 결승 패배에 대한 설욕전이라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경기가 중요하다.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전 승리를 통해 홈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 안산·오예진·최미선, AG 태극마크 ‘정조준’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안산, 오예진, 최미선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태극마크를 정조준한다.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이 오는 16-20일 충북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해 진행된 1·2차 선발전을 통과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로 올해 양궁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대회다.

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 각 20명씩 총 80명의 선수가 출전해 2026년도 국가대표 타이틀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기록경기, 토너먼트, 리그전이 결합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별 배정이 부여된다.

총 5회전에 걸쳐 진행되며, 대회 1일차(1회전) 배정합계를 바탕으로 리커브와 컴파운드 남녀 각 16명의 선수가 2·5회전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 5회전 종료 후 최종 성적에 따라 리커브 및 컴파운드 남녀 각 상위 8명이 2026년도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 강재영, 임시현(이상 현대모비스), 안산(광주은행 테넨양궁단) 등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들의 선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구본찬(현대제철), 최미선(광주은행 테넨

2026 양궁 국가대표 3차선발전...오는 16일부터 5일간 열전



12일 광주여대 훈련장에서 훈련을 마친 안산(왼쪽부터), 오예진, 최미선이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은행 테넨양궁단 제공>

양궁단), 장민희, 전효영(이상 인천시청) 등을 리커브 메달리스트들도 대거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광주은행 입단으로 실업 새내기가 된 오예진의 새로운 도전도 눈길을 끈다.

특히 광주여대 선·후배 3명이 나란히 사대에 서는 광주은행 테넨양궁단의 각오는 남다

르다.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이 2위,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이 16위, 2024 WAA(아시아양궁연맹) 아시안컵 3차대회 3관왕 오예진이 6위를 기록하며 태극마크 도전에 나선 이들의 선의의 경쟁도 관전포인트다. /박희중기자

## “광장이 열린다”...빛고를 생활체육 힘찬 기지개

광주시체육회, 전남 지도자 20명 위촉...5개구 20개소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이달부터 시민 누구나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시체육회는 12일 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체육광장 사업 전담 지도자 2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장지도자는 생활체육 지도자,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초·중등 정교사(2급 이상)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운동 지도뿐 아니라 생활체육 정보 제공과 동호인 클럽 결성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육 활동 참여를 돕는다.

생활체육광장 사업은 올해로 33번째 맞는 대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체육 분야의 중점사업이다.

광주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참여 접근성을 고려해 동구(동명동 작은 공영장 등 4개소), 서구(마재 근린공원), 남구(광주 사직공원 등 4개소), 북구(양산호수공원 등 8개소), 광산구(쌍암공원 등 3개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



이다. 중목은 생활제조, 에어로빅, 라인댄스·택견 등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종목이며, 장소별 전담 지도자가 3월부터 11월까지 1일 1시간 주 3~6회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새벽 또는 저녁 시간대에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전남 지도자들의 복지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며 “생활체육광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운동하기 좋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광주를 조성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한국 야구대표 김도민이 12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FIU 베이스볼 스타디움에서 타격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지현호, ‘올스타 라인업’ 도미니카공과내일 오전 7시30분 8강 격돌

## “단판승부, 마이애미 기적도 있다”



(WBC)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한국 야구대표팀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도미니카공화국과 준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4일 오전 7시 30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도미니카공화국과 WBC 준결승 단판대결을 벌인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앞선다는 평가다.

도미니카공화국은 MLB 올스타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특히 후안 소토(뉴욕 메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이상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슈퍼스타들이 즐비한 타선이 위협적이다.

마운드 역시 최정상급 투수들로 구성된 최 리스토페르 산체스(필라델피아 필리스)가 한국전 선발로 등판한다.

불펜진도 막강하다. 2023년 내셔널리그 세이브 1위를 차지한 카밀로 도발(뉴욕 양키스), 지난해 MLB에서 37홀드를 기록한 아브네르 우

리베(밀워키 브루어스) 등 세계 최고의 투수들이 불펜에서 대기한다.

경기 환경도 도미니카공화국에 유리하다. 조별리그 네 경기를 모두 론디포파크에서 치러 시차 적응과 이동 문제 없이 토너먼트를 준비할 수 있다.

반면 한국 대표팀은 좌완 선발 손주영(LG)이 팔꿈치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대체 선수 후보로 꼽히던 한국계 빅리거 불펜 투수 라일리 오브리언(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합류가 무산되면서 기존 엔트리보다 한 명이 적은 채로 8강전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단판전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한국 야구대표팀 역시 WBC 무대에서 이를 증명할 경험이 있다.

2006 회 WBC에서 주변의 예상을 깨고 4강 진출에 성공했고 2009 WBC에선 준우승했다.

2003년 대회에서 대표팀 코치였던 류지현 감독과 2009년 대회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한 류현진(한화)은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심리적 부담도 도미니카공화국 쪽이 더 크다. 한국은 ‘저도 본전’이라는 부담 없는 마음으로 8강전에 나설 수 있다.

대표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투수진을 활용해 실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